外書飜譯과 大學文化

秦 敎 勳
(서울大 哲學科)

'飜譯은 反譯(trahitio)'이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文學 書籍의 번역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뭏든 번역 작업이 난해한 일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外國語를 말하거나 쓸 줄 안다고 해서 누구나 번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번역은 제 2 의 創作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外國 學說의 번역 소개는 그 자체가 하나의 훌륭한 학문적 활동이다. 알렉산더 훔볼트(A. Humboldt)가 "교육은 낯설은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비롯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새삼스럽게 번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力說한다는 것은 누구나 시인하는 진부한 말이 될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昨今의 번역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말로 된 번역서는 대체로 重譯이 많다. 다시 말해서 日本人들이 번역한 책을 다시 우리말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1950~60 년대에 출판된 책들은 日語라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약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重譯을 했다. 그러나 1970 년대 이후에는 단기간 日語를 학습하고 겨우 日語를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에다가 專門的인 학문의 硏鑽 경험이 全無하다시피 한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번역을 해서 출판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英語書籍을 우리말로 직접 옮긴 책이 요즈음은 상당수에 달하긴 하나, 대학을 갓 졸업하거나 전문 서적이라곤 한두 권도 제대로 읽지 못한 사람들이 번역을 하고 있다. 특히 人文·社會科學 書籍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만한 책들일수록 단기간내에 현값을 받고 번역 일을 맡기 때문에 誤譯, 拙譯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그러면 전문 지식을 가진 大學敎授들은 왜 번역을 하지 않거나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물론 대학교수들 중에는 後學들에게 학술 소개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희생적으로 성실한 번역 작업을 하는 분들이 있긴 있다. 그러나 1970 년대부터 교수의 연구 업적에서 번역물은 제외되었다. 왜냐하면 교수가 번역한 책들 중에도 重譯이 아니면 제자들(대학원생은 좀 나은 편이고 심지어 학부 학생까지 동원한 실례가 있다)이 함부로 번역한 것을 꼼꼼히 推敲조차 아니 하고 자기 이름으로 출판한 무책임한 것들이 있어서 번역은 교수의 자질을 높이고 학술 연구를 독려하는 데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학교 당국이나 문교부에서 오해하도록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자 학술 서적 번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知悉하고 있는 교수들까지도 번역을 外面하기 시작했다. 필자의 견해로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교수는 연구 논문 발표, 저서 발간에 못지 않게 後學과 제자들이 스스로 연

구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자료로서 外國 학자의 좋은 책들을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히 번역, 소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왜 전문 지식과 훌륭한 외국어 실력을 가진 교수들이 번역을 하지 않는가?

첫째로, 앞에서 말한 대로 번역은 교수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原文에 충실한 번역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적당히 편역(?)을 자기 글이라고 해버리면 얼마든지 쉽게 글을 쓸 수 있고, 외국 학자의 글의 大綱과 要旨만을 살려서 교묘하게 표절하면 훌륭한(?) 논문이나 저서로 둔갑을 할 수 있어 구태여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구애되면서 힘들게 번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번역료는 특히 良心的인 교수에게는 그 수고에 비하여 그 代價가 너무나도 적기 때문이다. 번역료는 가장 값이 싼 원고료에 속한다. 출판사에서도 번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에 그 대접이 아주 나쁜 것이 현 실정이다.

세째로, 교수들은 한가(?)하게 번역할 시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교수의 업무량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 과중하다는 것이다; 강의 부담도 많고 학생 지도에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수들은 연구 업적 인정은 고사하고 교수로서 승진할 때도 인정 못 받고 대우도 나쁜 번역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책의 번역은 새로운 用語와 術語를 考案해 내야 하는 難事이기 때문에 교수들은 구태여 욕 먹는 일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일반 독자와 학생들의 요구가 있다 보니 사이비 번역가들이 속출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이비 번역의 해독은 誤譯, 拙譯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번역의 출판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은 점잖은(?) 교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번역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며, 남의 번역서를 실제로 읽고 크게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논문을 쓸 때는 번역서를 인용하지 않고 읽지도 않은 원서만을 인용한다는 사실이다. 美國 학계에서는 獨, 佛 서적을 解說할 수 있는 학자들도, 반드시 英語로 번역된 책을 일부러 구해 가지고 자기가 단시간 내에 함부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이를 더 높이 평가하여 필요할 때 그 번역서를 인용한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학술 서적의 번역은 엄연히 학술 연구의 업적에 포함되어야 한다. 번역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다. 우리나라처럼 外國文物을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시간을 들여 많은 외국어를 다 배울 필요는 없다. 日本에서는 佛語를 모르는 훌륭한 佛文學者가 있고, 獨語를 모르는 獨文學者가 美國에도 있다. 특히 희랍어, 라틴어 등의 古典이 우리말로 하루속히 번역되어야 한다. 이러한 古典飜譯事業은 작은 出版社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일은 대규모의 학술 단체나 국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특별한 배려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조국 광복이 되어 우리 글로 된 책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된 지도 어느덧 반 세기가 되어 오고 있다. 外國 古典을 사이비 번역가들에 의한 重譯이 아니라 직접 우수한 학자들을 동원하여 번역해야 한다. 또 우리 서적을 外國語로 번역하여 세계의 지성인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飜譯風土에 일대 개혁이 요구된다. 간단히 말해서 교수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번역 사업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필자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 대학에 있는 출판부(또는 출판국)에서 학생들이 自習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번역서를 출판하고, 또 번역을 장려 고무하는 일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도적으로 번역을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세해부터는 우리나라도 國際著作權協會에 가입하게 되고 번역권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차제에 출판사들은 스스로 자기 규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막대한 번역권료를 지불하면서도 번역을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책이라면, 상당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번역을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출판 사정으로는 대학 출판 당국이 번역 사업을 맡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 번역 사업에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번역은 교수가 직접하거나 적어도 교수의 감준이 없이는 출판을 허가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惡飜譯書가 良飜譯書를 구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지식과 古典의 지혜에 굶주린 우리나라의 大學生들에게 좋은 번역서가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불온 서적의 해괴한 번역의 난립과 거두절미한 졸역을 막기 위해서라도 뜻있는 교수들이 번역 사업에 보다 뜨거운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苦言을 여기서 마친다. ※

〈投 稿 案 內〉

「大學敎育」誌 제27호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公募합니다.

1. **內 容**—大學敎育에 관련된 論說, 대학에서의 硏究 및 敎授 활동 중에서 대학사회에 시사를 줄 수 있는 主題에 관한 논의, 각 學科의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활동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와 외국에서의 연구동향 소개, 최근 (2~3년내) 外國에서 발간된 學術書籍 중에서 국내 학계에 널리 소개할 만한 서적에 대한 서평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글
   - ① 論 壇
   - ② 敎授談論
   - ③ 學科別 敎育課題
   - ④ 新刊紹介
2. **枚 數**—200자 원고지 35매, 45매 또는 54매(②는 15매, ④는 13매 또는 22매)
3. **期 限**—1987년 3월 20일
4. **稿 料**—매당 2,500원 (채택된 원고에 한함)
5. **提出處**—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韓國大學敎育協議會 (T. 783-3891, 3067)
6. **附 記**
   - ① 國漢文을 혼용하되 漢字를 제한하고 필요할 때에는 原語를 併記해 주십시오.
   - ② 論壇原稿에는 반드시 200字 이내의 要約文이나 拔萃文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③ 제출된 원고는 編輯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게재합니다.